22. 치과 근로자에서 발생한 갑상선 유두암

성별	여성	나이	만 41세	직종	치과 근로자	직업관련성	낮음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17년 5월부터 □치과의원에서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였다. 2020년 10월경 우측 경부 통증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보았고, 2021년 4월 15일 세침흡입검사 상우측 갑상선 유두암 진단 받았고, 2021년 5월 4일 갑상선 전 절제수술 시행하였다. 근로자는 근무 중 노출되는 방사선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,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본인 진술에 의하면 2004년부터 약 17년간 여러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. 4대 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은 7년 7개월 이다. 근로자는 □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서 진료실 업무 및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였다. 업무 비중은 진료실 업무 50%에 데스크 업무 50% 정도라고 진술하였다. 데스크 업무는 전화상담, 예약 업무, 수납, 청구,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이며,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업무도 포함된다. 진료실 업무는 수술 보조 업무,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과정 중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. 또한 방사선 촬영장비를 이용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□치과의원에서 2017년 4월경 근무를 시작하기 전 2004년부터 여러 치과에계속 근무하였으며, □치과의원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게 진료실업무, 상담업무, 방사선 촬영업무를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2020년 10월경 우측 경부 통증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보았고, 2021년 4월 15일 세침 흡입 검사 상 우측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 받았다. 2021년 5월 4일 A대학 병원에서 갑상선 전 절제수술 및 중심구획 림프절 절제술, 우측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. 조직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 유두암 (Papillary thyroid carcinoma, right) 확진 받았다.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고, 개인 질병력은 없다.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빈혈(20년 혈색소 11.9g/dL, 18년 혈색소 10g/dL, 15년 13.5g/dL) 이외에는 특이 사항 없다.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었다. 가족력은 특이 사항 없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여, 1980년생)은 만 41세인 2021년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2017년 5월부터 □치과의원에서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였다. 갑상선암의 경우 radio-iodines, X-radiation, gamma radiation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는 약 7년 7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으나, 연간 노출량은 0.0283mSv/yr로 추정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갑상선 유두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